

블록체인·AI 등 5개 大 명품강좌, 인강으로 배운다

교육부 K-MOOC '묶음강좌' 첫 선정 빅데이터·사물인터넷·클라우드 4차 산업혁명 강좌 하반기 오픈

서울과기대 '어드밴스드 로보틱스' 서울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성균관대 '스마트카 핵심기술' 세종사이버대·세종대 '블록체인'



〈교육부가 첫 선정한 K-MOOC 묶음강좌 현황〉

기관명	4차 산업혁명 분야	묶음강좌명	세부강좌수
서울과학기술대	로봇공학	어드밴스드 로보틱스 (Advanced Robotics)	4강좌
서울대	빅데이터,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5강좌
성균관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카, 핵심기술의 이해	5강좌
세종사이버대·세종대 한국정보보호학회·(주)NSHC	블록체인	블록체인	4강좌
한국과학기술원 SK주식회사	클라우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5강좌

/사진=유도이미지·자료=교육부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기술에 대해 국내 우수 대학의 온라인 묶음강좌를 통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18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묶음강좌' 5가지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선정된 강좌는 '어드밴스드 로보틱스' (서울과기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서울대), '스마트카 핵심기술의 이해' (성균관대), '블록체인' (세종사이버대·세종대 등 협업 강좌), '클라우드' (한국과학기술원·SK주식회사)로 올해 하반기 선을 보일 예정이다.

K-MOOC는 질 높은 대학 등의 콘텐츠와 양방향 학습관리 제공을 통해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교수-학습 혁신

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0월 서비스를 개통했다.

이후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약 27만 9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약 58만 1000건의 수강신청이 이뤄지는 등 학습자의 관심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 회원가입자를 보면, 20대가 43%로 가장 많고, 30대(15%), 40대(14%), 20대(14%) 순으로 전 연령대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이번에 첫 선정한 묶음강좌는 특정분야 4~5개 강좌를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전문 분야에 대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묶음강좌 선정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대주제로 공모한 결과,

총 11개 묶음강좌 계획을 접수했고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서면과 대면평가를 통해 기관역량(40점)과 강좌우수성(60점)을 종합 평가해 총 5묶음 강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강좌를 보면, 서울과학기술대는 지난 2017년 K-MOOC 강좌로 개발·운영한 '로보틱스(Robotics)'의 심화과정으로 '어드밴스드 로보틱스(Advanced Robotics)' 강좌를 개발했다. 육·해·공 로봇(수중로봇, 모바일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드론)에 대한 설계와 구동 원리, 제어기법 등의 학습과정을 제공한다.

서울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주제로 이론과 도구, 적용의 세 영역으로 묶음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강의에서 대용량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기 위한 이론과 기술로 웹 검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마이닝'과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개념과 수학적 원리 이해,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실습과 사례중심 응용강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균관대는 컴퓨터·통신·측정기술 등을 이용해 자동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나 GPS(지구위지측정위성) 시스템 수신기를 활용한 '스마트카'에 대한 강좌를 운영한다. 관련 산업 종사자는 물론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초기술부터 학부나 전문가 수준의 차량용 통신 기술, 제어시스템까지 단계별 강좌를 구성해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사이버대학교는 세종대, 한국정보

보호학회, (주)NSHC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강좌를 제공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함으로써 공인된 제3자 없이도 거래기록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비즈니스 모델 등 다양한 활용 사례와 실습으로 실제 업무 적용 능력을 높여도록 강좌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주)SK와 협업한 강좌를 선보인다.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 이론과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 등 산업체 현장 실무를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해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선정한 개별강좌 23개와 이번에 선정한 묶음강좌 5묶음(23개 강좌)을 신규 개발해 하반기부터 학습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강좌는 K-MOOC 누리집(www.kmooc.kr)에서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부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선정한 묶음 강좌를 통해 학습자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체계적·심층적으로 학습하고, 직무와 연계해 필요한 부분을 수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취업해도 걱정... 직장인 63% "고용불안감"

회사 경영 좋지 않을 때 가장 많아 61%는 '업무의욕 저하'로 이어져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취업을 했음에도 여전히 고용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3%가 고용불안감을 체감한다고 답했다.

고용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회사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서' (39.2%)가 1위로 꼽혔다. 이어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26.7%) 등으로 나와 기업의 경영 상황이 직원들의 심리에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고용형태가 불안해서' (23.4%), '회사의 평균 근속연수가 짧아

서' (21.5%), '회사가 미래에 쇠퇴할 업종이라서' (13.7%),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거나 할 계획이라서' (13.3%), '업무 성과가 떨어져서' (12.1%), '직무가 미래에 쇠퇴할 직무라서' (11.8%), '부서장, 직속상사의 입지가 약해서' (10%)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런 고용불안감은 직장생활에도 영향(복수응답)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의욕이 떨어짐' (61.2%), '이직 및 퇴사를 고민함' (60.6%), '자기개발을 하게 됨' (23.9%), '업무 성과가 감소함' (15.7%) 등이 있었다.

응답자 중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인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7.4%에 불과했다. 또 82.6%는 정년까지 다닐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고, 현 직장에서 근무 가능한 나이는 평균 43세로 집계됐다.

/한용수 기자



한국어 채택 지원사업 2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어 채택 지원사업 2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용선 청와대 민사사회수석(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수간야 음안반중 태국 기초교육위원회 사무부총장,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이사장 영담스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철뉴스

대학가 소식

'2018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상명대 이준영교수 '1코노미'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경제금융학부 이준영 교수의 저서 '1코노미(도서출판 북이십일·사진)'가 한국출판문화 진흥원의 '2018 세종도서 교양부문(사회과학)'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책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메가트렌드를 다양한 이론과 사례를 통해 분석, 소비의 개인화 현상에 주목해 이들의 심리와 소비 성향을 분석했다.

한국영어교육학회장에 한국외대 김해동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인철)는 김해동 교육대학원장(사진)이 지난 7일 숙명여대에서 열린 한국영어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제2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0일 밝혔다.

회장 임기는 2018년 8월부터 2년이다. 한국영어교육학회는 1965년 창립했으며 영어교육 유관학회 중 가장 전통있는 학술단체다.

/한용수 기자

동덕여대 총장에 김명애 교수 선임

동덕여자대학교 제9대 총장에 김명애(60·사진) 교수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회는 김명애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동덕여대 제9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8월23일부터 4년이다.

동덕여대에 따르면 김 신임 총장은 이 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일본 나라여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 20여년간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생활관장과 학생처장, 자연과 학대학장 등 보직을 역임했다.

/한용수 기자

2030 취준생·직장인 10명 중 1명은 '공시생'

잡코리아 2858명 대상 설문

취준생보다 직장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비율이 더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30 취준생과 직장인 10명 중 1명 꼴로 '현재 공시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잡코리아가 20~30대 취준생과 직장인 총 28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3명 꼴인 32.9%에 달했다. 이런 답변은 직장인(37.2%)이 취준생(31.3%)보다 많았다.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11.4%로 10명 중 1명이었고, 이들 중에서 직장인(12.6%)이 취준생(10.9%)보다 소폭 많았다.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은 '9급 공무원 시험'(64.0%)이 가장 많았고, 이어 '7급 공무원'(16.0%)이었다.

이외에 직장인 중 '민간 경력자 일괄채

용'을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13.9%에 달했다.

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는 '고용 안정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 (78.2%)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노후 연금을 받기 위해' (41.5%), '일반 기업에 비해 복지제도가 나쁘지 않아서' (40.9%)라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공무원이 적성에 맞다고 판단해서' (16.9%),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11.7%)라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점(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치열한 경쟁률' (65.5%)이 꼽혔고, '채용 규모가 적고' (40.0%), '채용 빈도가 낮아' (39.1%), 한번 떨어지면 준비기간이 긴 점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힘든 점으로 꼽혔다.

/한용수 기자